

해외파, 국내 그린서 맞대결

KPGA 신한동해오픈 내일 개막

최경주·허석호·장익제 등 출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일본프로골프(JGTO) 등 '골프 선진국'에서 날아온 해외 특급 스타 플레이어들이 국내 무대에서 격돌한다. 3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7천490야드)에서 치러질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에는 최경주(36·나이키골프)를 비롯해 작년 US오픈 챔피언 마이클 캠벨(뉴질랜드)과 '브리티시오픈의 사나이' 허석호(33), 일본프로골프 신인왕 출신 장익제(33), 해외파 '맏형' 김종덕(35·나노소울) 등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올해 22회째로 전통이나 충상금 규모(6억원)에서나 한국프로골프에서는 메이저대회로 대접받는 신한동해오픈은 이

로써 해외 스타들의 우승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면서 세계 정상급으로 자리잡은 최경주와 세계랭킹 24위에 올라 있는 캠벨의 대결이다.

최경주는 미국 진출 이후에도 해마다 한 두 차례 국내에서 1승씩을 쟁쟁왔지만 유독 신한동해오픈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캠벨이 작년 US오픈을 제패하는 등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지만 최경주는 아시아투어에서 뛰던 시절부터 자주 상대했고 PGA 투어 무대에서도 밀린다는 생각은 않았기에 안방에서 우승컵을 내줄 수는 없다는 다짐이다.

US오픈을 포함해 유럽프로골프투어 8승을 올린 캠벨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타이거 우즈(미국)의 우승으로 끝난 브리티시오픈이었지만 출전해 17위(캠벨), 22위(최경주)를 차지한 뒤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들들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내려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연습 리운드 등 바쁜 일정에 돌입했다.

최경주와 캠벨 둘에게 '일본파'도 소홀히 볼 수 없는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다. 특히 김종덕과 허석호는 각각 대회에서 한차례 우승컵을 안아본 경험이 있다.

허석호는 브리티시오픈에서 11위를 차지한 여제를 몰아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모자 쭈을 뒤집어쓰고 익살스러운 언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예스파 파르네빅(스웨덴)도 PGA 투어 통산 5승의 관록을 앞세워 한국 무대 정상을 노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한동해오픈에 참가하는 해외 골프스타들이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마이클 캠벨, 최경주, 예스파 파르네빅, 김종덕선수.

이지영 VS 오초아 '리턴 매치'

LPGA 스테이트팜클래식 내일 개막

최근 세 차례 경쟁에서 우승 트로피를 아쉽게 놓친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이 3전4기에 나선다.

이지영은 31일(한국시간) 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레일골프장(파72·6천649야드)에서 나흘간 열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클래식에 출전한다.

이지영의 상승세는 이 대회에 나서는 한국선수 21명 가운데 '코리안 군단'에 시

즌 10번째 우승컵을 선사할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평균 비거리 290.5야드에 이른 드라이브샷은 83.9%라는 높은 퍼어웨이 안착률을 보여 '멀리, 정확하게 친다'는 찬사를 받았고 아이언샷의 그린 적중률도 80.5%

로 라운드당 14.5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 어냈다.

약점으로 지적받던 퍼팅도 라운드당 27.5개꼴로 향상돼 LPGA 투어에서 어떤

선수와 겨뤄도 자신을 가질만한 수준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한국 선수는 오초아와 리턴 매치를 벼르는 이지영뿐 아니다.

눈여겨 봐야 할 선수는 캐나다 여자오픈 이후 1주 휴식을 취한 뒤 출사표를 낸 박세리(29·CJ)와 고국 방문을 마치고 복귀한 한희원(28·윌라코리아)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루빈 '파워' 리시브'

미국의 루빈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체코의 니콜 바이디소바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형택 2회전 진출

US오픈테니스 단식

상무고 이창봉 '金'

30일(수)

한국남자 테니스의 대들보 이형택(세계랭킹 70위·삼성증권)이 총상금 189억원이 걸린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단식 2회전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29일 미국 뉴욕시 플러싱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1회전에서 루벤 라미레스 이달고(57위·스페인)를 3-0(7-5 6-4 6-0)으로 완파하고 64강이 겨루는 2회전에 올라 '강적' 토미 브로베도(6위·스페인)와 3회전 진출을 다했다. 호주오픈 1회전에서 탈락했던 이형택은 지난 월드컵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2회전에 올랐다.

이창봉(상무고 2)이 2006MBC배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창봉은 28일 아산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남고 평영 200m에서 2분 19초 72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황준호(전남중3)는 남중 자유형 200m와 자유형 400m에서 각각 1분55초 30과 4분07초 62로 2관왕에 올랐으며 김지현(화정남중 6)도 여초 자유형 200m에서 2분10초2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 이순영도 여고부 접영 50m에서 29초13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TV

건물 매도

모든 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의동 39-1(동부시내)

대지

◎136평 건면 59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도가 협의 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심일부동산

☎ (02) 223-1140, 520-5011-602-252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재건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 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 234-8216 원 011-609-0896
(광주은행 본점)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총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중앙상도보도 30평 20억

·금호동 대지 35평 5층 170평

·남동 대지 35평 2층건물 29억

·금호동 대지 35평 3층 30평 2850만

·광천동 삼성아파트앞 대로 30평 3850만

·광천동 삼성아파트 2층 120평 750만

·광천동 삼성아파트 3층 120평 750만

·하남 우산동 대지 24평 9억

·운남동 아파트별관 3층 60평 27억

LCT아워(주)

☎ (02) 872-8004, 원 010-7154-6996

첨단지구 LCT아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금) 종합학원 일대

3층 265평 A급

시설 원비

전화 상담

요망

◀ 각층 분할 가능▶

• 3층 212평 88평

기능업종: 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

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기능업종: 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시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기능업종: 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함산동 공인중개사 남 어 2층 모집중 ☎ (02)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판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살수있다!!

* 경매-판찰시 일정 낮은 수익이

기대되는 들키는 상황입니다!!

1. 첨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 181평 준공년도 2004년

경매가 25억(최저가 12억)

2. 회정동 티미널롯데 현재 경매예상

점장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 200평

경매가 35억(최저가 15억)

대급으로 넘은 0피트 5채 긴급매매

1. 용봉동 한대아이파크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90만원/49평형 아파트

분양가 293만원/39평형 아파트

분양가 295만원/39평형 아파트

분양가 298만원/39평형 아파트

분양가 300만원/39평형 아파트

분양가 303만